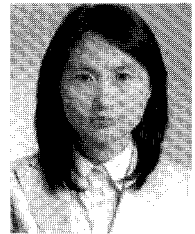


● 특집 ●

성남시수정도서관 ‘내 인생의 회고록’

-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문학프로그램 -



김영란
성남시수정도서관 사서
ifyou96@hanmail.net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을 목적으로 자료봉사, 각종 문화 강좌 운영 등 꾸준한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그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거나 부모의 관심 속에 있는 아이들 또는 어려서부터 도서관을 삶 속에서 경험해 본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과거에 비해 공공도서관들이 지역의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노년층 등 정보문화서비스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꾸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유도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 다시 시작한 문학작가 파견 사업

성남시수정도서관은 지난해 이미 한 차례 한국도서관협회 ‘문학관, 도서관에 문학작가 파견’ 사업에 참여(2009. 6.3~11.21), 성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주민 및 자녀들에게 독서, 글쓰기, 낭독회, 문화체험 등 다양한 독서·문학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지역의 작가가 강사로 참여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작가에게는 열악한 창작여건 개선 및 수강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수강생들에게는 체계적인 글쓰기 과정을 경험케 하고 책과 친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하에 시작하였지만 실제 작가의 강의 경험 부족 및 이미 3월부터 문화교실 프로그램(글쓰기, 독서지도, NIE, 독서회 등)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과 성

격이 유사한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하다보니 미처 문화교실 등록을 못했던 이용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지만,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기도 했다.

지난 4월 '2010 문학관, 도서관 문학작가 파견' 사업 참여 공고문서가 다시 접수되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우리도서관에 문서접수가 늦어진 점도 있었지만 정해진 일정자체가 촉박했다. 지원관 신청을 위한 선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작가 모집, 구체적인 운영계획 작성 및 신청서 제출에서부터 최종 지원관 선정까지 채 20일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 프로그램 운영은 5월부터 시작이었다. 하지만, 일정이 촉박하다고 지난해 운영한 사업을 접을 수는 없었다. 다시 한 번 공모에 참여키로 결정하고 지역 작가 모집 공고를 냈과 동시에 대략적인 운영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2009년 사업 시작 때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원활한 사업진행 및 정보문화서비스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서 지난해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했다.

먼저,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 선정을 위해 기 운영되고 있는 문화교실 및 기타 프로그램, 우리도서관 인접기관의 프로그램 및 대상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결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체육·예술 프로그램들은 있었지만 작가가 참여해야 하고, 도서관의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글쓰기, 독서, 논술 등을 주제로 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평생학습센터 현황 및 운영프로그램

- 수정구 내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 평생학습센터 : 37개 기관
- 수정도서관 소재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및 인접지역 평생학습센터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 운영 현황

(성남시 행정구역 : 수정구, 중원구 등 4개 구 16개동)

기관명	대상	주요 운영프로그램
산성동 복지회관	지역주민	- 요가, 만들기, 요가, 컴퓨터, 학습관련 등 - 건강/문화/교양 프로그램
	노인	- 노래교실, 생활체조
산성동 주민자치센터	지역주민	- 건강/문화/예술 프로그램
성남시수정도서관	지역주민	- 글쓰기, 독서회, 독서지도 등 문학프로그램 - 어학, 취미교양 프로그램 - 유아 및 어린이 바둑, 만들기 프로그램 등
	50세 이상	- 일본어, 컴퓨터 등 어학/정보화 프로그램 - 동화구연, 만들기 등 문화프로그램
수정노인종합복지관	60세 이상	- 에어로빅, 요가 등 건강/스포츠 프로그램 - 민요, 노래교실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 한글, 컴퓨터 등 문해/정보화 프로그램
		수영교실
수정청소년수련관	60세 이상	- 요가, 헬스 등 건강/스포츠 프로그램
	지역주민	- 서예, 미술, 음악 등 교양/문화/예술 프로그램 - 동화구연, 글쓰기 등 문학프로그램

작가 모집은 수월치 않았다. 짧은 모집기간, 문인협회 등 공신력 있는 관련단체가 인정한 작가, 월 20시간의 문학프로그램 지도, 사업종료 후 집필한 작품 제출 등 조건이 부담스러웠을까. 문의전화는 여럿 있었지만 최종 서류제출은 단 1명.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원하던 분이였다. 2000년 동화작품으로 등단한 아동문학가이자 노년소설, 노년의식에도 관심이 있어 그 분야 관련 집필 경력은 물론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분이였다.

선정된 작가와 문학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대상 및 포맷을 구상하고(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50세 이상 어르신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독서·논술·글쓰기 지도) 4월 21일 지원관 신청서 제출, 4월 29일 '문학관, 도서관 문학작가 파견 사업' 지원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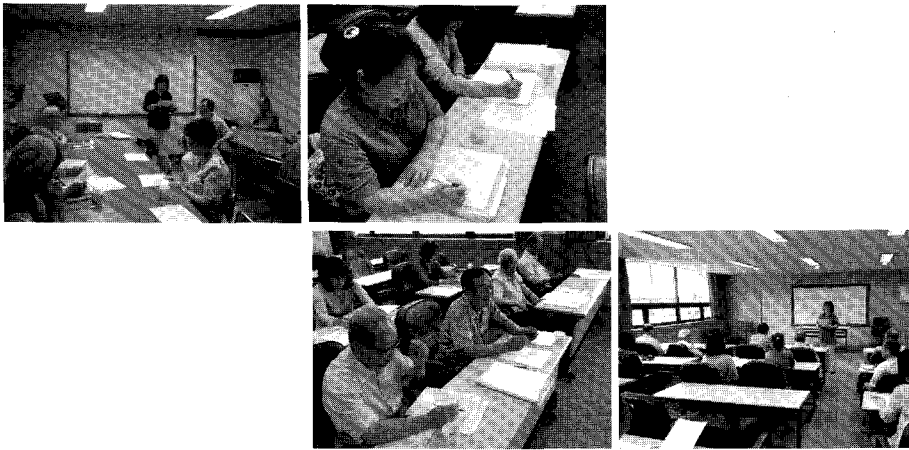
●●●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프로그램 '창의논술 놀이터', '내 인생의 회고록' (2010. 5. 11 ~ 10. 26)

'창의논술 놀이터'는 매주 금요일, 1일 2시간씩 작가가 지역의 아동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교·어휘·문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독서·논술 지도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내 인생의 회고록'은 매주 화요일, 1일 3시간씩 지역의 50세 이상 어르신 10분을 대상으로 독서 및 치유적 글쓰기를 통한 인생 회고 및 자신감 회복, 자기를 찾고 상처를 치유하는 나의 이야기 쓰기라는 주제로 기획되었다. 타기관 또는 기존 문화강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문학프로그램이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내 인생의 회고록' 수강생은 성별도 연령대도 타 문화강좌와는 확연히 달랐다. 문화강좌의 주류를 이루던 주부보다는 여성에 비해 사회활동이 많았고, 가장으로서의 고충, 퇴직, 자녀양육 부담에서 해방된 60~70대 남성 수강생의 비율이 높았다.

5월 한달 간은 문학과 좋은 글 등 글쓰기의 기본이론 및 쓰기 연습, 문장 작법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고민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습작 습관을 갖도록 유도하는 과정을 거쳐 6월부터는 글감으로 열개짜기, 글쓰기 연습, 발표를 병행하여 수강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되었다. 두 달간의 과정이 글쓰기의 기본 다지기 및 쓰기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을 없애는 시간이었다면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회고록, 자서전 쓰기의 이론 및 실재가 진행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7월은 수강생들에게 가장 호응이 높은 달이기도 했지만, 반면 수강생 및 수업을 진행하는 작가에게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했다.

50세 이상 어르신 소수의 인원(10분)을 대상으로 1일 3시간씩 여유롭게 수업이 진행되면서 작가가 수강생 한 분 한 분을 지도해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수강생들의 입소문을 통해 중간에 등록하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더욱이 수강생 모집 기간이었던 5월 초는 6월 지방선거의 여파로 지방신문에 선거관련 기사가 쏟아지면서 수강생 모집 홍보 기사가 거의 게재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다 6월 말 즈음 지역 『교차로신문』 게시판에 '내 인생의 회고록' 수강생 모집 기사가 뒤늦게 실리는 여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기사를 본 이용자들로부터 수강가능 여부를 물어오는 전화가 늘어나면서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담당자의 입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이 증가한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으나 어르신을 대상으로, 그 분들의 인생역정을 끌어내 글로 작성토록 하는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작가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라 수강생 증원은 고려하지 않았으나 작가가 먼저 상황을 알고 증원 요청해 프로그램의 수혜인원이 늘어나는 기현상을 낳았다.



▲내 인생의 회고록

작가가 지도해야 할 인원이 증가한 시점부터 자서전, 회고록 쓰기실제가 시작되면서 수업내용이 기존과는 달리 자신의 실제 살아온 이야기를 남 앞에서 쏟아내고, 표현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수강생도, 이야기를 끌어내야하는 작가도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생기자 작가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수강생들에게 쏟아냈다. 그리고 하나, 둘 용기를 얻는 수강생들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수업은 다시 활력을 찾았다. 이야기 나누기와 질문하기, 답 작성하기 등 과정이 이뤄지면서 각자의 자서전, 회고록이 점점 틀을 갖춰가며 가슴에 묻어 두었던 지난 이야기를 쏟아내고, 타인의 살아온 이야기에 자신의 인생을 투영하면서 스스로 위안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졌다.

6개월로 계획된 '내 인생의 회고록'의 마감일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사업 마감과 함께 '내 인생의 회고록'은 문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자신이 살아온, 자신이 직접 쓴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다는 기대와 걱정으로 지금 수강생들은 마지막 원고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 작가의 창작여건 개선 및 문학활동 지원, 아울러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문학프로그램 제공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게 작가가 수강생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문학적 감성을 높이고 창작의 소재를 많이 얻었다고 행복해하는 기분 좋은 수확과 함께 당초,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싶다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던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2010 문학관, 도서관 문학작가 파견' 사업은 수업에 참여해 준 작가와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